무안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구내 축사 허가 반발

인근 주민들 소송 제기

"악취·지하수 오염 우려 불구 편법 동원 승인"

무안군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구내에 축사 신축을 허가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청계면 청계리에 박모(43)씨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악취 및 지하수 오염 등이 염려된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선 곳이 저지대 간척지로 만조 때 집중호우가 겹쳐 범람하게 되면 농경지는 물론 청정해역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무안군은 "허가지역은 국토이용계획원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위법사실이 없어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고, 주민들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주민들은 "건축물 승인을 받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판례를 악용, 서둘러 기둥과 지붕만 갖춘 채 사용승인검사를 받은 뒤 아직까지 바닥과 벽체공사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허가지역이 인근 주택과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축과정 중 농지훼손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무안군이 이를 묵인한 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축법상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병어축제 7·8일 이틀간 신안군 지도 송도공판장 일원에서 열린 '제 2회 신안 병어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병어를 구입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신안사랑 향토 음식개발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어선 해상퍼레이드, 병어 시식회, 맨손으로 활어 잡기, 어업인 위안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 내항 마리나 시설 내달 착공

70억 들여 계류장·레포츠교육장 등 설치

목포내항 마리나 시설 공사가 다음달 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비 35억, 시비 35억 등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09년 6월 완공예정으로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목포 마리나 시설은 당초 북항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목포내항으로 변경고시 됐다.

마리나시설이 준공되면 목포항이 서남해안권 해상레저 및 해상관광의 중심지이자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항만청 김삼열청장은 "목포항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 등 일반선박 항로와 요트(레저선박)용 항로를 구분하는 등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통항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대 中企 직업훈련 운영기관에 선정

3년간 30억 지원 받아

목포대학교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2008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대한조선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훈련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은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이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장 인력 육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

목포대는 직업훈련 운영기관 선정을 계기로 우수한 시설을 갖춘 교육장 확보와 기업이 필요한 주문형 교과과정 신설, 수익사업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영농철 농촌일손 돕기

신안군 20일까지 한달간 집중 전개

신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달간을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내 거동불편자·고령·부녀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30여 농가의 마늘과 양파수확을 돕고 있다.〈사진〉

또 각 읍·면사무소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 군부대나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일손돕기를 안내·지원하고 있다.

신안지역은 마늘 1천748ha와 양파 778ha가 재배되고 있으나 수확시기가 모내기, 보리베기 등과 겹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행복 더하기 신안샘터' 지도읍에 개설

이동세탁 차량 빨래·밑반찬 배달 서비스 개시

'행복더하기 신안샘터'가 지난 2일 지도읍에 문을 열었다.

신안샘터는 첫 사업으로 이동세탁복지 차량을 이용한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행복더하기 신안샘터'는 신안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지원하고 신안 행복복지네트워크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신안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는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한 빨래서비스 제공 ▲밑반찬 배달 및 재가 방문서비스 ▲행복교실 운영지원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 공동사업에 3년간 15억여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앞으로 설립될 '천사(1004)의 섬 신안복지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 복지자원 활용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다. 한편 행복더하기 샘터 사업은 전국에서 신안군과 충남 청양군 2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경찰서 승달지구대 자살 시도 여대생 구출

무안경찰서 승달지구대(지구대장 박춘선) 소속 경찰관들이 신속하고 침착한 현장대응으로 자살을 시도한 여대생을 구출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께 광주청 112 센터의 긴급 구조신호를 받은 승달지구대 소속 최생주 경위와 나승백 경사, 정영호 경장, 김주홍 순경 등 4명은 무안읍 성암저수지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최경위 등은 저수지 물속으로 10m쯤 빠져 들어가는 A(21)양을 발견, 김주홍 순경이 구명환을 맨 채 3m 높이의 배수로에서 저수지로 뛰어들었고 정영호 경장은 구명로프를 던져주는 합동작전으로 여대생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목포 아이디어 뱅크' 창의 실용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전국 100대 시책 선정

목포시의 '목포 아이디어 뱅크 시책'이 행정안전부 창의 실용 100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를 창출한 시책을 평가해 창의적 아이디어 59건을 발굴한 목포 아이디어 뱅크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아이디어 뱅크는 직원별 가상계좌를 개설, 업무 수행 중 창조적 의견과 제안을 등록하면 평가심의회를 통해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목포시는 개인별 아이디어 전자통장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아이디어 관리와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아이디어 뱅크 시책 추진을 주도한 김준철 목포시 기획혁신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